

特許廳長, 特許廳 改名 검토 밝혀

知的所有權廳 또는 産業所有權廳으로

特許廳은 工業所有權에 1次·3次産業이 포함되는데다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知的所有權 취급에 대비, 特許廳이 知

的所有權보호 기능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知的所有權廳 또는 産業所有權廳으로 改名하는 方案을 검토하고 있다.

朴弘植 特許廳長은 지난 3月 28日 大韓辨理士會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는 한편 새로운 知的所有權보호에 대해 『90年代 世界技術水準의 모습과 이에 걸맞는 知的所有權보호 制度를 구상하면서 工業所有權制度의 발전을 계속 推進하겠다』고 강조했다.

朴廳長은 이에따라 『이미 施行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외에도 앞으로 生命工學·集積回路·有線通信·Trade Secret 등의 보호에 관해서는 國際的인 보호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보호방안을 강구해 나가므로써 特許廳이 知的所有權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商標審查 準 改正

3月14日 改正과 함께 施行

特許廳은 지난 3月 14日 現행 商標審查基準(83年 11月 14日 字 改正)를 일부 改正했다.

特許廳에 따르면 이번에 改正된 商標審查基準은 따로이 定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改正日인 3月 14日부터 施行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改正된 商標審查基準 施行前에 한 商標登錄出

願은 이번에 改正된 商標審查基準에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從前의 基準에 의하기로 했다.

한편 本會는 이번에 改正된 商標審查基準 全文을 單行本으로 發刊, 會員社에 무료 配布했다. <자세한 내용은 本誌 24면 참조>

부다페스트 條約

3月28日부터 發效

우리나라가 지난해 12月 28日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에 寄託書를 제출한 「特許節次上 微生物寄託의 國際的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條約」이 지난 3月 28日부터 發效되었다.

이에따라 이제 特許出願하는 國家마다 微生物을 寄託하지 않고 國際寄託機關에 단 1回 寄託함으로써 寄託費用과 寄託에 수반하는 필요 經費를 節減할 수 있게 되었다.

工業所有權

海外研修團 파견

本會는 오는 5月 27日부터 6月 10日까지 美國과 日本에 「工業所有權海外研修團」을 파견하기로 했다. 參加대상은 企業體社長 및 任員 그리고 企業에서 추천하는 간부 및 特許專擔要員이다. <☎>